



2012 서울국제도서전 성료 ‘책을 펼치면 미래가 보인다’ ... 코엑스서 빛난 도서 세상 인협, 인쇄문화홍보관서 직지 및 고인쇄문화 홍보

대한출판문화협회(회장 윤형두)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(장관 최광식)가 후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전시회인 2012 서울국제도서전 (www.sibf.or.kr)이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.

글 | 임남숙 기자 sang@print.or.kr

‘2012 독서의 해’를 맞아 ‘책을 펼치면 미래가 보인다’는 주제로 진행된 18회 서울국제도서전은 총 20개국 580개사의 출판사가 참가해 아동도서를 포함한 인문사회, 과학, 문학, 예술, 철학 등 전 분야의 도서를 소개했다. 특히 올해는 중동 국가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빈국으로 참여해 아랍문화를 선보였다. 사우디아라비아는 2008년 중국, 2009년 일본, 2010년 프랑스에 이은 네 번째 주빈국으로,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아동 교육 전문가가 색칠, 그림그리기, 스토리텔링 등을 지도하는 아동 특별 프로그램 및 관람객들의 이름을 아랍어로 써보는 이벤트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진행됐다.

서울국제도서전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‘저자와의 대화’에는 김훈, 박범신, 은희경, 정호승 등 주요 작가 19명이 함께 했으며, ‘인문학 아카데미’에는 이어령, 김명곤, 최재천 등 한국

을 대표하는 명사 9명이 참여하는 등 예년에 비해 가장 많은 수의 작가가 독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.

대한인쇄문화협회(회장 김남수)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주시의 지원을 받아 인쇄문화홍보관을 꾸려, 직지 및 고인쇄 문화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.

잃어버린 한글 활자를 찾아서 등 다양한 볼거리

‘잃어버린 한글 활자를 찾아서’는 한글 활자 꼴의 변화 과정을 살펴 본 전시로, 옛 활자의 사료적 가치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했던 비교적 근대의 활자인 새 활자와 원도활자(손으로 직접 그려낸 글자를 바탕으로 만든 활자)를 중심으로 이뤄졌다. 범우사, 삼성출판박물관에서 훈민정음, 용비어천가, 월인석보, 두시언해, 이륜행실도 등의 전시자료를 제공했다.



인협은 인쇄문화홍보관을 꾸려, 직지 및 고인쇄문화 홍보활동을 펼쳤다.

전시는 크게 옛 활자 시기, 새 활자 시기, 원도활자 시기로 구분해 한글을 대중화시킨 소설류에 쓰였던 서민적인 한글과 성서를 중심으로 확산된 초기의 한글 새 활자 모습, 한글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된 교과서에 쓰인 활자 등을 통해 옛 활자와 원도 활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.

또한 헤밍웨이를 비롯해 헤르만헤세, 사르트르, 타고르 등 노벨문학상을 받은 유명작가 10인의 삶과 일상을 느낄 수 있는 '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특별전' 이 마련돼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.

저자와 독자가 만날 수 있는 자리 마련
매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진행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'저자와의 대화'에는 역대 가장 많은 작가가 참여했다. 영화 <은교>의 원작자인 박범신 작가, 소설가 겸 자전적 레이서인 김훈 작가, 젊은 층에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은희경 작가를 비롯해 한국의 대표적 서정시인인 정호승 작가, 최근 산행 수필집 '우리는 꽃필 수 있다'를 출간한 김벌아 작가 등 역대 도서전 중 가장 많은 작가가 참가했다.

또한 문학, 역사, 고전, 미학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독자들이 인문학에 보다 쉽

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'인문학 아카데미' 역시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'다원지능'으로,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'뽕만으로는 살 수 없다'로 독자들에게 강연을 진행했다. 그 외 광금주, 고미숙, 이희수, 신봉승, 김명곤, 정수복, 이동진씨 등 총 9명의 명사가 인문학 아카데미에 참여했다.

국내 최대 전자책 전시도 동시 진행
한국전자출판협회가 주최하고, 성도GL 솔루션, 유페이퍼, 맥플러스, 북잡 등 26개 전자책 기업이 참여한 '디지털 북페어 2012' 행사도 열렸다.

전자책 전시에서는 ▲디지털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엠북에디터와 애플 플랫폼을 구현하는 하모니 서비스 ▲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손쉬운 솔루션 Adobe Digital Publishing Suite 솔루션 ▲도서, 전자책, 앱북, 홍보영상, 웹사이트구축 및 다국어 번역 ONE STOP SERVICE, ▲인터랙티브 북을 쉽고 빠르게 개발·서비스를 할 수 있는 Active-Book 솔루션 ▲HTML5 기반 세계 최초 웹제작 서비스 셸프 e북 등 20여 개 솔루션과 1천여 개의 콘텐츠를 선보였다.

출판 전문인들을 위한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 구성

국내의 출판인들의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마련됐다.

출판유통진흥원이 주최한 '디지털 변하기 국제출판계의 대응전략' 세미나에서는 루이스 애들러 오스트레일리아 출판협회 회장(당선자)이 '디지털혁명과 출판산업'에 대해 기조연설을 발표했다. 이 외에도 '독서의 해 대토론회, 국민독서환경 혁신, 어떻게 할 것인가', '도서출판-새로운 파트너,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', '고품질 서지정보 유통을 위한 CIP 활성화', '중국 출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중국 출판 세미나', '출판 불황 해법과 전자책 세미나' 등 다양한 출판관련 세미나가 진행됐다. ↻



1. '잃어버린 한글 활자를 찾아서' 전시모습
2. 저자와의 만남에 참가한 정호승 작가
3. 인문학 아카데미에 참가한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